

호남 불교계, 봉축행사 '만반의 준비'

燈 전시회·어울림마당·합창제 등 시민·불자와 소통하는 행사 다채

올해 빛고을 광주의 봉축행사는 '전통의 멋과 흥, 그리고 지역나눔'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지난 2월 25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봉축행사 일정을 최종 발표했다. 광주지역 봉축행사는 4월 30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전통등(燈) 전시회(4월 30일~5월 16일), 어울림마당·제등행진·대동한마당(5월 7일), 시민한마당(4~5월) 등이 진행된다.

봉축장엄등으로는 한지로 만든 20m 높이의 석가탑을 아시아문화전당 앞에 조성한다. 전통등 전시회는 광주전과 광주시청에 60여개의 전통한지등(燈)을 설치해 봉축분위기를 한껏 돋우는 한편,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이다. 전통등 전시회는 지난해에만 5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아울러 5월 7일 본행사가 열리는 아시아문화전당 앞마당에는 시민과 불자가 하나 되는 열린 법석이 마련된다. 어린이·청소년들이 불교문화, 외국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부스와 전통공예, 사진전 등 다양한 불교 관련 행사를 만끽할 수 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화려한 울동의 연희단을 볼 수 있는 어울림마당, 6시 봉축법요식, 7시 제등행진(문화전당~광주전~사내 중심가~문화전당)

과 관등음악회(봉축음악회)가 이어져 불자와 시민들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축제의 장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 처음 열리는 '어울림마당'은 다양한 계층(어린이·청소년·합창단·신도)으로 구성된 연희단이 무대에 올라 행사에 참여한 불자와 함께 봉축 울동을 선보인다.

봉축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한창이다. 전통등기획단(단장 해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은 1~2월 대형장엄등(燈) 감수회에 이어 3월(22일~24일)에도 감수회를 연다. 제등행진 때 사찰을 대표하는 대형장엄등 보급을 위한 사업이다.

연희단기획단(단장 일명, 금선사 주지)은 더욱 눈에 띈다. 광주불교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연희단과 전체울동, 그룹별 울동은 올해 봉축행사의 '흥'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미 2월부터 30여 개 주요 사찰을 돌며 울동 감수회를 실시했다. 또한 전체울동을 이끌 '울동리더' 감수회도 매주 개최하고 있다.

사진영상기획단(단장 무등, 천통사 주지)은 3월 9일부터 15주간에 걸쳐 무료 강좌를 개최한다. 각 사찰 사진 담당자를 양성하고, 봉축행사의 다양한 사진을 담기 위해 발족한 사진영상기획단은 전통등전시회, 제등행진, 불교행사의 사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전주 종합경기장 광장에 세워진 봉축기원등 모습.

한편 전라북도 봉축위원회의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계획도 윤곽이 잡혔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3월 4일 전북불교회관에서 봉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봉축위원회는 조계종 금산사,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보문종, 용화종 등 각 종단 대표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신행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 구성과 세부 행사계획안,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북봉축위원회는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주제 표어에 맞춰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으로 정하고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각종 봉축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우선 4월 16일부터 전주 주요도로에

봉축 가로연등을 걸고 유도인구가 밀집되는 주요도로변에는 홍보탑을 세워 봉축행사를 홍보할 계획이다. 같은 날 전주 종합경기장 앞 광장에서는 봉축기원등 점등식이 진행된다. 또한 4월 23일에는 전북어린이 큰잔치와 전북불교연합회 합창제가, 5월 7일에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대규모 연등축제가 열린다. 이후 13일 제6탄약창 연등제, 14일 사찰별 봉축법요식이 이어진다. 이외에도 교도소·소년원·군법당 위문법회가 진행된 후 28일 청소년 모악축제를 끝으로 봉축행사는 마무리된다.

봉축행사기간에는 전북불교회관에서 연등 만들기 대회가 열리며 전북교사단 주최의 교리퀴즈대회도 열린다. 또 부처님오신날 봉축사상 강연회도 예정돼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조동제 전북지사장



어르신 위한 '생명평화밥상' 급식소 개소

전북지역 불교계 뜻 모아 무료로 운영

전북지역 불교계가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식식사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생명평화밥상(사진)' 무료급식소를 개설했다.

3월 2일 전주시 금암동 전북생명평화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금산암 주지 덕산 스님, 광인순 자연음식문화원 이사장, 오종근 전북불교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세원 금암동주민센터장, 김영돈 금산암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 밥을 나누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시작된 '생명평화밥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어르신들이 편하게 식사를 하고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북지역 불교계를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이 후원했다.

생명평화밥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오전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금암동주민센터에서 주

찬한 3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한다. 인공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자연음식을 기본으로 소박하지만 정성껏 마련한 상차림을 제공하고 있다.

덕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고 나누니 마음이 행복해진다. 이제 시작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명평화밥상'은 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이 순번을 정해 배식과 설거지를 도맡아 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지원 없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전주 금산암, 참종은우리집, (사)부처님세상 전북불교대학 등 지역 사찰뿐만 아니라 전북불교대학 자원봉사회, (사)착한벗들, (사)자연음식문화원 등 후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경지 전북불교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정기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고기, 야채, 빵 등 현물과 자원봉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대병원불자회, 매월 위문공연 펼친다

아리랑예술단 재능기부로

국립대 병원 중 불교시설이 없는 전북대학교병원에 불자들이 매월 정기적인 위문공연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대학교 병원불자회(회장 이준모, 정형외과 교수)와 한국노인복지회(회장 정인) 아리랑예술단(단장 안선희)은 3월 6일 전북대학교 병원 모악홀에서 '환우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개최했다.

한국노인복지회장 정인 스님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날 공연은 아리랑예술단의 재능기부와 수 한방병원 등의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공연은 안선희 아리랑예술단장을 비롯해 국악인 백사랑과 백고은, 가수 이소영과 조하연 등이 출연해 국악과 가요, 각설이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병마에 지친 환우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환우들에게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아리랑 예술단.

행사를 주관한 정인 스님은 "국립 전북대병원에 작은 법당이나 상담실 하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며 "불교계에서 매월 정기적인 위문공연을 통해 환우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북도내에서 소외받고 있는 요양원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문공연을 하며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쳐온 아리랑예술단은 앞으로 전북대병원에서도 매달 1회씩 재능기부 공연을 하기로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사업 발대

3월 3일, 어르신 314명 참가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은 3월 3일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대상자 314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진행했다.

2016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해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자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사업은 기존사업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관리지원사업 64명, 학교생활관리지원활동사업 80명, 지역보육시설 및 아동센터도우미과전사업 45명, 신규사업 건강체조 및 취미생활지원사업 20명, 문화공연지원활동 30명 총 314명이 참여한다.



고창군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는 총 314명이 참가했다.

유영길 어르신의 선사문 낭독으로 시작된 발대식은 2016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고창경찰서 및 고창군노인복지센터가 연계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과 노인장기요양등급 관련 교육이 이어졌다.

대원 스님은 "100세 시대의 노인 인구가 증가에 따라 사회참여 활성화와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힘차고 행복한 노년, 보람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자동연등승강장치

인등·영구위패 시공

만월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생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공 단 등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